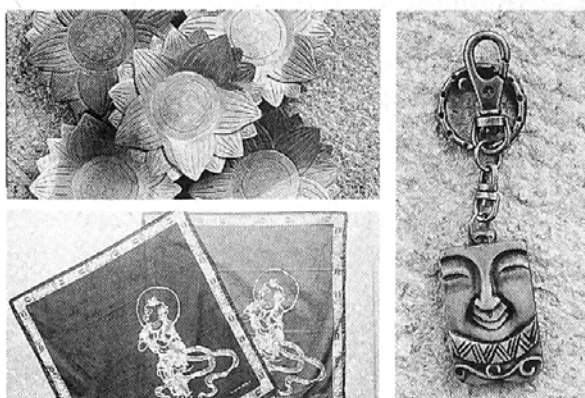


# 불교소재 문화상품 안만드나 못만드나

한국을 처음 찾은 외국인 친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경북공대 한국전통공예관을 찾은 불자 오유주씨(25·회사원)는 실망감부터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외국인 친구에게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불교소재 문화상품을 선물하려 했으나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연꽃모양으로 조각된 컵받침(14,000원)을 골랐다. 전통소재 상품들은 많았으나 불교문화재를 소재로 한 것은 고를 것도 없을 만큼 찾기 힘들었던 것.

후 문화상품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유산소재 디자인공모전을 오는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온 불교계도 불교문화재를 소재로 한 현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디자인 개발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소리가

커프링크 및 타이텍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국보235호인 '고려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본' 변상도안의 동자승을 소재로 한 문장수건은 테두리에 잡귀를 쫓는 상징물인 금강저를 둘러 고려불화의 유려한 선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 불교문화재에서 소재를 얻어 디자인된 문화상품들. 연꽃모양 목각 컵받침(왼쪽 위), 불화변상도의 동자승을 무늬로 한 손수건(왼쪽 아래), 물상의 얼굴부분을 이용한 열쇠고리(오른쪽).

## 자원 무궁무진... 디자인 개발 상품화 '포교 일조' 불화문 손수건·석굴암시계 등 외국인 선물 '인기'

는다. 호암미술관등 각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상품개발이 활발해지고 따라서 불교문화재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의 개발도 차츰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불교계에도 관심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문화재단은 운영실 마케팅부를 중심으로 고려불화문 손수건, 동자승 열쇠고리·목걸이, 연꽃문양

상품으로 세련감을 느끼게 한다. 국보133호인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의 연꽃을 든 동자승을 이용한 열쇠고리와 목걸이, 연꽃문양으로 만든 커프링크와 타이텍도 호평받는 상품들이다. 한국전통공예미술관 디자인실은 최근 한국문화 CIO 선정된 석굴암 본존불을 소재로 한 벽시계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연꽃문양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넥타이와 민타라수수건도 눈에 띄는 상품. 전통공예미술관의 마경일디자인실장은 "우리 것을 소재로 한 디자인일수록 외국인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삼성문화재단 선임디자이너 박종

성 연구원은 "불화 등 전통이미지를 현대화할 수 있는 소재는 찾기에 따라 무궁무진하다"며 "전통에 바탕을 둔 다양한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용품용 주로 디자인하고 있는 '선재마을' 대표 유지선씨는 "단청이나 문살문양중에는 일상용품에 이용할 만한 세련된 것이 많이 있다"며 "첨단 비디오히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감각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지만 비용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 육바리밀을 춤으로 형상화한 '선무가 바리밀다' 1997.

## '行禪의 원리' 춤으로 형상화

이선옥씨 '바리밀다' 공연... 14·15일 예술의 전당

재미만무가 이선옥교수(뉴욕대 무용과)가 행선(行禪)의 원리 그대로를 춤으로 형상화한 '선무가 바리밀다' 1997 공연을 갖는다. 오는 14, 15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모두 6부로서 진행된다. 1부 보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림과 증생의 평안을 위한 열불공양 결인법을 춤으로 형상화하고, 2부

지계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욕심과 유혹, 갈등을 선 무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의 과정이 소개된다. 3부 인욕에서는 열불과 목탁 징 평과리 북 등의 악기와 음성공양을 통해 수행하는 모습이 춤으로 엮여지며, 4부 정진에서는 재난과 천재지변에서도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참선을 통해 자신을 찾는

수행과정, 5부 선정에서는 삼매의 경지에 몰입해 가장 맑고 깨끗한 진리자리에 도달하는 모습이, 6부 지혜에서는 깨달음, 진공묘유의 지리를 표현하며 장엄하게 마무리 된다.

이번 공연에는 이선옥교수가 이끄는 뉴욕선무용단과 지난해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된 워크숍을 통해 새로 조직된 선무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미국작곡가 조셉 펠리의 음악과 사물놀이, 반주, 스티브 로젠탈의 무대예술, 김희자 씨의 설치예술이 어우러져 종합예술로서의 이색공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02)765-7951(104)

## 황충상씨 불교소설 '無明草' 출간 '삭도' '사바에 와서' 등 단편 7편 묶어

소설가 황충상씨가 그간 발표한 불교소설중 일곱편의 단편을 묶어 소설집 《無明草》를 펴냈다(작가정신刊). 작가 자신이 한때 수행자로 지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번 소설들은 중생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중생이라는 화두를 갖고 쓰여졌으며, 7편의 단편들을 통괄하는 주제는 무명을 벗으면 중생이 곧 부처라는 작가의 확신이다. 내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한국화가 조항숙씨의 그림이 칼라로 수록되어 있는 재미를 더한다. '무명초'는 식물인간이 된 불화의 대가 해봉화백의 육체적 죽음의 현상을 통해 인간성의 있음과 없음의 구별짓는 것이 곧 무명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삭도'는 한

때 종단의 핵심이었던 무소스님이 자신의 정수리에 삭도를 내리꽂음으로써 극단의 초월의지를 보여주는 작품. '사바에 와서'는 환속한 재가승이 세속의 오랜 방황 끝에 가사를 채우면서 환속의 생과 사의 생이 다르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데 참불자로서의 길이 있음을 깨닫는 내용. '화백'은 미망에 빠져 욕망의 불을 일으키고, 그 마음의 불을 끄지 않으면 중생은 불길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불타는 집에서 한아이를 구하고 살신한 한 남자의 이야기. '실쪽'은 한 인간이 가진 욕망과 금욕의 첨예한 대립을, 한여인의 죽음과 스님의 자살을 통해 적나라하게 표현, 중생의 두마음,



선과 악의 갈등을 대비함으로써 중생의 실상을 보여준다. '사리'는 고승의 입적후 사리를 찾아헤매는 중생들을 통해 허상에 집착하는 중생심을 버리지 않고는 사리의 의미란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깨우침을 주고 있으며 '무색계'는 백일병으로 죽은 여고생 혼과 참나의 사생아로 태어나 간질병으로 죽은 한 남자 혼의 방황을 통해 무명세계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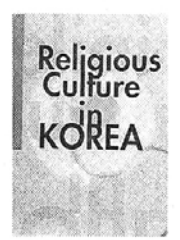
## 부산 '동다송문화원' 18일 개원

부산에 전문 전통문화교육도 양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개원한 동다송문화원(원장 박수자) 1층에는 한복디자인 허영씨가 한복코너를 마련, 우리옷바탕이 필요특감, 우리의상발표회 등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2층 송종암

은 판소리 다례실기 공간, 전시회장으로 쓰이고, 3층 죽로지실은 차분화이론, 전통예절 및 다례실기, 꽃꽂이, 한국무용, 도예 등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된다. 회원제로 운영될 동다송문화원은 특강과 현장답사도 실시한다. (051)621-8648~9

## '한국의 종교문화' 영문판 발간

문화체육부는 우리나라의 종교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영문판 책자 《Religious Culture in Korea(한국의 종교문화)》를 펴냈다. 개원부에서는 한국종교의 현황과 특성, 종교의 역사, 오늘날 각 종교단체의 사회활동 등 한국종교문화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다루었고, 불교를 비롯 각 종교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문화재 등이 전반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관련 도표와 칼라 사진도 함께 실었다. 비매품.



## 불심시심 <75>

### 소매 가득한 향기

曳杖尋幽徑	석장 끌고 찾아가는 그윽한 길
(예장심유경)	
徘徊獨賞春	요리조리 오가며 봄을 맛보다
(배회독상춘)	
歸來香滿袖	소매 가득 향기 담아 돌아오는 길
(귀래향만수)	
胡蝶逐隨人	나비들 멀리서 나를 따르다
(호접逐隨人)	

위의 시도 환상대사가 '봄을 감상한다(賞春)' 한 시이다. 지난 주에 스님의 시세계가 "물 흘러 꽃 피는" 경지라 했음이 다시 연상된다. 봄날의 한적함을 만끽하는 한 시인이 여실하게 눈 앞에 어른거린다. 산 길을 외로이 걷는 스님이다. 동행자는 오직 지팡이 뿐이다. 지팡이란 몸의 지시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럴 때는 나와 지팡이가 서로 의지하는 두 몸이다. 지금 스님의 석장은 짙은 지팡이가 아니라, 곧 가는 지팡이이다. 서로의 의지가 아닌 내가 심심해서 끌고 가는 지팡이이다. 지팡이로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지팡이이니, 이 길은 오직 나 하나일 뿐이다. 가는 길도 깊숙하고 그윽한 길이다. 어느 지향점이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기에 요리조리 오가는 배회와 같이요, 작자로서도 홀로(獨)라는 부사가 머리에 얹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경경이 다. 굳이 불경경이니 상춘이니 할 것도 없이 그저 봄과 내가 스쳐 지나고 있는 것이다. 지팡이를 끌다, 배회하다, 홀로 등의 단어들만 암시해 주고 있듯이

한가로움 그 자체이다.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홀로 무심한 한 스님만 남게 된다. 이렇듯 한가로움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이지만, 자연은 역시 무심함이 아니었다. 향기가 은밀하게 스며들었다. 향기가 가득한 소매이다. 누가 주위담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가득한 향기이다. 왜 굳이 소매일까. 스님의 장삼이나 선비의 도포 소매는 길고도 깊다. 호주머니가 없던 당시에는 이 소매 끝이 주머니 구실을 하여 어떤 물건이라도 담겨 있어 있다. 지금 봄의 향기도 이것을 알아 이 소매 속으로 숨어든 것이다.

아름다운 향기는 멀수록 더욱 향취하는 법이니, 멀리서 나비들이 이 향취를 맡았다. 여기 멀리(遠)라는 부사의 의미가 향기만 큼이나 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이리도 보면 스님은 사람이 아니라 꽃이 된 셈이다. 나비는 꽃을 찾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물 흐르고 꽃 핀다는 스님의 시평은 여기에서 더 실감이 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 문화 소식

세계 유명얼음조각품이 선보이는 '세계유명 얼음 건축전'이 열리고 있다. (0335)30-8341

## '불교문에' 겨울호 나와

전문불교문화지 계간 《불교문에》 겨울호(통권 제3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박희진 이성선 오세영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50인 특집 △조종현 작 품론 △(님의 침묵)속에 담긴 만해의 시세계 △한국수필문학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소견(한상렬) 등 다채로운 읽을거리가 실려있다. (02)308-9520

## 유물전시관 토요일장

문화재관리국 공중유물전시관에서는 제5회 특별토요문화장자를 개실한다. 오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일 2회(토, 일) 오후 14:00~15:30) 개최되는 이번 강좌는 불화속의 담긴 신앙세계, 한국법종의 이해, 민화이야기, 궁중의식과 음악 등 총 20강좌로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한다. (02)753-2582

## 진진옥씨 '춧불' 퍼내

대한불교장학재단재정위원회 부산경남지부장 진진옥씨가 시와 찬불가를 함께 엮어 《춧불》이란 제목으로 첫 시집을 펴냈다. (도서출판 대한출판)

## 바리춤등 민속춤 공연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설날맞이 특별행사로 오는 8·9일 전통민속춤공연 외창타기 공개방송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특히 오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전통민속춤공연에는 승무 바리춤 대평상대 등이 펼쳐진다. 에버랜드에서는 또한 오는 9일까지 석가탑 다보탑 등

## 출가·재가 학인 모집

21세기 불교 최고 지도자 양성기관인 한국승가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접수기간 : 1월 15일~2월 15일 까지
- 입학자격 : ① 대학이상 졸업자  
② 불교 교양대학 졸업자  
③ 불교 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자 (특별전형)
- 모집구분 : ① 출강(부산) 수·금요일 등교  
② 통신반(전국) 4째 일요일 등교
- 교육기간 : 2년(4학기) 출강반·통신반 동일
- 졸업특전 : ① 졸업증서 수여  
② 5종법사 자격증 수여  
③ 법화경 연구소 학술위원 위촉  
④ 강원(교양대)개원시 지원

※ 자세한 입학 안내서 우편으로 청구하면 빠른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우)701-600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한국승가대학원 교무처  
(대)053-952-8711 교수직통 017-501-8711

불기 2541년 1월 일

한국승가대학원  
책임교수 최 공 덕

## 초대의 말씀

신심 깊으신 불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타 종교인으로 부터 수 만평의 땅을 보시 받았습니니다. 다음과 같은 일에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십시오.

- 1) 양로원을 짓고자 하시는 분
- 2) 남골당을 짓고자 하시는 분
- 3) 도덕관을 짓고자 하시는 분
- 4) 수련원을 짓고자 하시는 분
- 5) 유아원을 짓고자 하시는 분
- 6) 대학교 및 병원 또는 불교와 관련된 일을 하실 분

◎ 이곳 사찰을 중심으로 왕방산, 국사봉, 해룡산, 소요산, 감악산이 저허 제일봉을 감싸고 있으며 아래마을은 무학대사께서 남과북의 정중앙이라 하여 비를 남기셨고, 현재는 관광특구 민속마을로 공사중이며 산세는 큰 담담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형국으로서 주위에 온천수맥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소송이 순수 지은 조립식 사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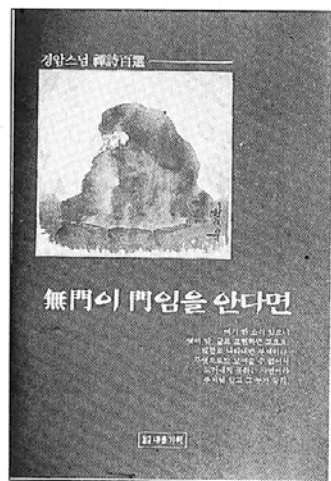
◎ 진심한 불자로서 스님과 함께 생활하실 분은 언제든지 찾아 주십시오  
※ 파는 것이 아닙니다. 뜻있는 불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영탑사 도선 합장  
전화 (0351)867-4131

#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 경암 김준현스님 禪詩百選 時調詩로 엮은 깨달음의 詩!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깨칠 것인가를  
잔잔한 물결처럼 나직히 일러주는 스님의 목소리...



경암스님의 시는 간단하면서도 한구절 한구절이 깊이 음미하면 불교인식의 구경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짧은 인생을 길게사는 법을 관념적로나마 알게된다.  
-장이투스님 발문 중에서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8만 4천 법문이  
꽃 한 송이에 감침을 보고

눈 푸른 남자(衲子)는 꿈 깨어  
최열로 이말 쳤단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네 이마도 안 남으리

## 도서 출판 대흥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정가 10,000원)